

Issue Com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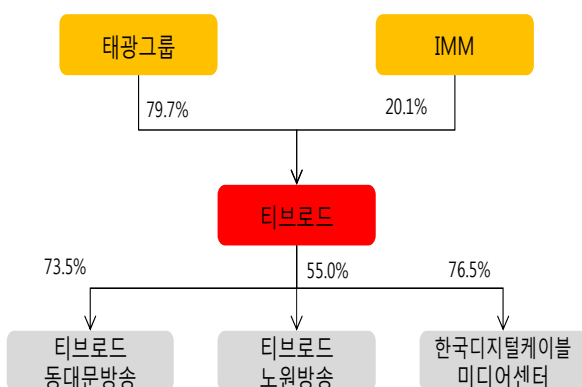
- ✓ 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MOU 체결
- ✓ 티브로드는 무차입 법인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가입자 보유
- ✓ SK 텔레콤은 현금 유출없어 추가적인 M&A 가능성 있음

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추진

SK 텔레콤의 100%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의 티브로드가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함. 2018년 상반기 기준 SK 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는 454만명이며, 티브로드 SO 가입자는 314만명으로 합병 시 합산 가입자는 768만명임. KT 진영 986만명(31.9%), LG 진영 781만명(24.4%)에 이어 유료방송 3위 사업자(23.8%)로 부상하게 됨. 티브로드는 서울, 인천, 부산, 대구 등 대도시 중심의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, 무차입 법인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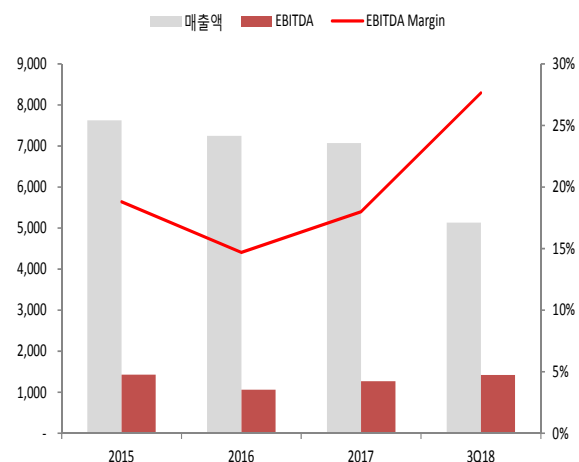
이번 딜은 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전제된 딜임. 즉 SK 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 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SK 텔레콤의 현금유출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. 재원비축을 통해 딜라이브(가입자: 206만명), 현대HCN(가입자 133만명) 등 추가적인 M&A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. 이 경우 가입자 기준 2위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음. 홈쇼핑송출 수수료 협상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명확한 유료방송의 특성상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

티브로드 지분구조



티브로드 실적 추이

(단위: 억원)



자료 : 티브로드

자료 : 티브로드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